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 공모 심의 총평(2차 통합)

- 회의일시 : 2021. 12. 1.(화) 14:00~17:00
- 회의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중연습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수미, 김예림, 김일송, 심정민, 송시경

2022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대관 공모에서는 연극 87건, 무용 78건, 뮤지컬 4건, 다원 5건, 행사 1건, 기타 11건으로 총 186건의 지원 작품이 접수되었다. 1차 심의를 거친 128건이 2차 심의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연극 50건, 무용 60건, 뮤지컬 3건, 다원 5건, 기타 10건이었다. 최종 심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총 67건이 대관 작품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의 지원 작품이 총 261건이었던 데 비하면 올해의 지원 건수는 다소 감소한 듯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접수량이 많았던 것은 당시 특정 이슈였던 개관 40주년, 극장의 특성화 기준 폐지 및 개선 등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올해는 비교적 평이한 분위기에서 공모가 이루어졌으며, 접수된 지원 작품도 기존의 평균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

최종 선정된 67건은 연극 23건, 무용 36건, 뮤지컬 1건, 다원 2건, 기타 5건이다. 선정 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용 작품이 많아 보이지만, 장르의 특성상 연극의 신청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대관 일수로 보면 연극 23건은 총 325일, 무용 36건은 총 227일을 차지한다. 축제와 단독 공연의 선정 결과에서도 선정 건수와 대관 일수가 각각 3:7의 비율로 드러나 이번 심사 결과는 각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안배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사는 사전의 충분한 자료 검토 이후, 1차에서 연극/무용의 분야별 심사가 이루어졌고 선별된 작품은 2차에서 각 분야의 심사위원이 함께 모여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의 과정의 주요 4개 지표는 작품의 예술성과 공연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 신청단체의 활동 실적 및 운영 역량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모두에게 대관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공연장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작품의 적합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다. 1차의 연극 분야 심사에는 뮤지컬, 다원, 행사, 기타 장르가 포함되었으며, 1차의 무용 분야에서는 무용 외 기타 장르가 포함되었다. 기타 분야는 연극과 무용, 두 개 분야에서 중복하여 심사했다.

연극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SF소재 작품과 재연작이 눈에 띄게 많았다. 재연작 심사에서는 초연 당시의 관객 반응과 평가를 참고했으며, 재연의 타당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점을 주요 관점에서 다뤘다. 해당 분야의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선하고 참신한 양식, 주제나 형식의 확장, 공연계에 끼칠 예술적 영감이나 동기 부여 제공, 관객 확산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무용 분야에서는 앞서 제시된 4개의 기본 지표 외에도 무용계에 기여도가 큰 축제나 행사, 역사적 의미와 가치, 사회적 가치 실현, 예술가로서의 가능성 여부 등의 특징을 추가로 고려했다. 독립 무용가와 무용단의 신청이 다소 저조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팬데믹 영향을 받은 단체의 현실적 타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심사 과정 중 특히 축제 분야에서는 기획서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참신함이 부족할 경우, 동일한 시기에 여러 극장을 한꺼번에 선점하는 무리한 지원 등을 보다 엄격하게 살펴보았으며,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확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힌 계획의 현실성과 충실성 등을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논의한 작품들은 대관 시기가 겹쳐서 경합이 불가피한 경우였다. 이런 경우에는 1차 심사에서 일차적으로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작품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었다. 이후 장르의 특성과 공연장 상황을 다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대관 기회가 제한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극장 변경과 일정 조율(변경, 축소, 확장 포함)을 차선책으로 남겨두어 마지막까지 우수한 작품이 대관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했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심의 전 자료 검토의 절차를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일종의 사전 심의 과정인데, 본 심의 전 심사위원들이 일주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수된 작품들을 전수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였다. 각 심사위원들은 심의 전 개별적으로 심의자료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1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가채 점한 결과를 사전에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심의 대상에 속하는 단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비밀유지 준수 등의 철저한 보안 아래에서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새롭게 시도된 사전 심의 과정은 본심의 1, 2차 과정을 보다 밀도 높은 심화 과정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과도한 양의 작품을 심의할 때 발생하는 판단 오류나 선입견 등을 방지하고 오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관 심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관점에서 출발한 만큼 심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예술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과정이었기를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좀 더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